

신안군 지도읍 농촌마을 첫 LPG배관망 개통

태천마을 시작 193억 투입해 10개 마을 LPG배관망 구축 도시가스 수준 안정성·편의성 제공...연료비 약 50% 절감

신안군은 13일 지도읍 태천마을을 시작으로 군단위 LPG배관망을 구축하고 순차적으로 마을별 LPG 배관망 개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LPG저장시설과 지하배관망을 통해 LPG가스를 각 가정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신안군은 LP배관망 사업에 사

업비 193억을 투입하여 지도읍 읍내리를 포함해 총 10개마을을 대상으로 구축 진행중이며,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도 배관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도읍 전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이번 사업으로 지도읍 읍내리 및 LPG배관망 사업대상 마을은

기존 LPG용기를 사용할 때 보다 약 50%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가스보일러, 급속배관 교체 및 가스경보기 설치 등으로 보다 현대화된 안전한 가스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태천마을 LPG배관망 개통이 주민들의 연료 사용 환경개선과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한다"며 "지속적으로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복지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전년비 5.1% 2천6백만원 ↑

영암군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1,232건에 대해 539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1%, 2천6백만원 상승한 것으로 주요인은 1인 가구 수와 사업장 수 증가로 분석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 대주와 직전년도 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이다. 특히 민법상 미성년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미만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한 날부터 1년 미경과자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과세외의 된다. 이번 발송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061-470-1070)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국 23개 은행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전자납부번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항공산단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관·학 협력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무안군은 지난 14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항공정비분야 인력양성과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동신대학교(총장 최일), 국제항공정비(대표 김주선)와 산·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항공특화산업 발전과 전문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참여기관들은 각 기관간 기술훈련과 교육분야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산 군수는 "향후 항공정비기정장 운영되면 기업에서는 맞춤형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인재들의 직업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6월 30일 항공특화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계획이 전라남도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 착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준비중에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해양쓰레기 처리에 총력

영산강 하구·해안로 따라 1일 평균 120톤 수거

목포시가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구와 목포 해안가를 뒤덮은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지난 9일부터 공무원을 필두로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대적인 수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평화광장에서 목포 내항에 이르기까지 목포 해안가에 분포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군부대, 사회단체 등과 협조해 1일 평균 120톤가량을 수거하고 있다. 또 영산강 하구에 쌓인 부유쓰레기는 중장비를 투입하고, 목포해양경찰, 군부대 등의 인력 협조를 받아 1일 평균 100톤 가량을 수거하고 있다. 시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이달 말까지 수거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활동도 함께 전개 중이다. 차량 및 인력 방역에 총 32명을 투입해 수변공원에서 평화광장, 갯바위 일원 해안가를 집중적인 살충·살균 방역 실시하고 있다. 김종식 시장은 "해양 쓰레기 수거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쓰레기량이 워낙 방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하루 빨리 미항 목포의 본모습을 되찾겠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시는 전라남도와 협의해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약 10억원을 환경부에 지원 요청할 예정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군, 오룡지구 입주민 대상 군공항 반대 홍보

무안군은 오룡지구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입장려물품 전달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일부터 오룡지구 현장민원실을 방문하는 신규 입주세대에게 전입 환영과 함께 군정 홍보물 세트(전입장려물품과 각종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의 부당함을 알렸다. 홍보물 세트는 무안사랑상품권, 종량제봉투, 방역키트, 치약세트 등 전입장려물품과 각종 홍보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수원지 재난대비 현장점검 실시

15년 만에 수원지 만수...제방안전 위해 수위조절



영광군은 지난 8~9일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상수원 5개 수원지가 만수되어 제방 안전점검을 위해 13일 연암수원지 현장을 방문하였다. 우리 군 상수원 중 규모가 가장 큰 연암수원지는 1999년 9월에 준공되었으며 저수용량은 348만 톤

으로 6개 읍·면(영광·대마·묘량·불갑·군서·군남면)에 공급하는 중요한 수원지로 향후 수돗물 생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난대비 현장점검에서 김준성 군수는 15년 만에 연암수원지 여수토(물넘이)로 물이 넘쳐 제방 누수, 토사유실 등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제체나 여수로 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하였으며, 수위조절을 통해 저수지 안전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원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5개 수원지에 대해 하반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